

『율리시즈』와 조이스의 포스트식민주의적 시각

김 희 선

I

빌 애쉬크로프트(Bill Ashcroft), 개레스 그리피스(Gareth Griffiths), 헬렌 티핀(Helen Tiffin)이 쓴 『제국 되받아 쓰다』(*The Empire Writes Back*)에서 포스트 식민주의적 글쓰기의 특징으로 그들이 내세우는 요소를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소설 『율리시즈』(*Ulysses*)에 적용하여 논의해 볼 수 있다. 즉 『율리시즈』에서 조이스의 포스트 식민주의 작가의 면모를 찾아 볼 수 있다. 조이스의 조국이기도 하고 그의 작품들에서 배경으로 삼고 있는 아일랜드는 그가 작품을 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다.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하는 카톨릭 종교는 영국제국주의 아래에서 점차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갔으며, 아일랜드 국민들을 전통과 인습으로 구속하고 있었고, 더욱더 부정적인 것은 영국제국주의와 결탁한 상태로 영국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국민들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톨릭 신부들은 권력에 아부하느라고 바빴고, 물질적, 세속적으로 되어가면서 타락해가고 있었다. 이렇게 정치적, 종교적으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아일랜드 국민들의 고통은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식민주의적 침입과 종속의 파괴적 영향에 의해 야기된 문화적, 심리적 분열”을 겪고 있었고, 점차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었다(Nelson 62). 영국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이러한 아일랜드

국민들의 심리적, 문화적 혼란의 가중 그리고 정체성의 상실을 치유하고자 등장한 것이 아일랜드 민족주의이다. 그러나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추진하던 민족주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적인 모순으로 가득 차고, 영국제국주의의 폭력성과 다를 바 없는 폭력성을 띠고, 너무나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비이성적이고, 감상적으로 되었다. 그 결과 아일랜드 민족주의는 아일랜드 해방을 통해 아일랜드 국민들을 혼란한 상황에서 구하겠다는 본연의 목적을 점차적으로 상실한 채 타락해가고 있었다.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이러한 모습들을 그의 작품 『율리시즈』에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그는 『율리시즈』에서 영국제국주의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정체성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은 『율리시즈』의 주요 인물인 스티븐 디덜러스(Stephen Dedalus)와 리오폴드 블룸(Leopold Bloom)이다. 그들은 다른 아일랜드국민들처럼 조국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정신적인 방황을 한다. 1904년 6월 16일 하루동안 일어났던 일을 다루는 이 소설 속에서 스티븐과 블룸은 그들의 정신적인 방황을 대변이라도 하듯 더블린 시내를 하루종일 방황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이 처한 여러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조이스는 “제국주의 중심부에 의한 포스트 식민주의적 목소리의 침묵화 및 주변화”라는 애쉬크로프트, 그리피스, 티핀 등이 주장한 포스트 식민주의 글쓰기의 특징을 두 주요 인물들이 겪는 내적 고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83). 그는 이들의 심리적, 문화적 혼란, 이로 인한 정체성의 상실의 근원에 흐르는 영국제국주의 횡포를 그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이스의 이러한 영국제국주의에 의해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 즉 영국제국주의라는 중심부에 의해 포스트 식민주의의 글쓰기의 특징인 아일랜드국민들의 목소리가 침묵화되고 주변화되는 경향을 주로 스티븐¹⁾에 초점을 맞춰 『율리시즈』장들 중 “텔레마커스”(Telemachus), “네스터”(Nestor), “써시”(Circe)장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 1) 『율리시즈』에서 스티븐, 블룸 둘 다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서 야기되는 문제들로 인해 고통 당하지만, 영국 제국주의자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텔레마커스”, “네스터”, “써시”장들에서 알 수 있듯이 블룸보다 스티븐의 고통이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라는 사실과 보다 더 관련성을 가진다고 생각되어 영국 제국주의라는 중심부에 의해 아일랜드 국민들의 목소리가 침묵화되고 주변화되는 경향을 스티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쉬크로프트 등이 포스트식민주의의 또 다른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는 “텍스트 안에서 제국주의 중심을 폐기하는” 양상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을 통해 제국주의 중심부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일차적으로 우리를 주목시킨다(83). 그러나 조이스는 그의 작품에서 제국주의 중심을 폐기하려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이스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전개하는 민족주의 운동은 너무나 배타적이고, 편협해서 영국제국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이스는 『울리시즈』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식민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 중심을 폐기하는 가장 쉬운 일차적인 전략으로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다. 즉 민족 전통의 회복에 기초한 탈중심화 과정을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통한 탈중심화 과정은 우려를 낳을 수가 있다. 즉 민족주의에 대한 지나친 향수를 자아낼 수 있고 그로 인해 배타적 민족중심주의, 문화적 본질주의를 생산할 수 있다. “민족 전통 연구가 독점하고자 하는 중심부의 주장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최초이자 최상의 역동적 주제이며 자기이해 과정의 일부”라고 애쉬크로프트 등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국의 문화만을 우선시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문화적 본질주의를 생산하게 되고 타민족 문화 여기서는 영국의 문화에 대한 억압과 지배라는 새로운 식민주의 구도를 만들게 된다(17). 그 결과 역으로 영국의 문화를 주변부화 시키고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이항 대립적인 구도를 반복하여 식민 통제담론을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영국제국주의라는 중심부에 대해 배타적 민족중심주의를 통한 탈중심화 과정을 전개하는 것이 조이스의 의도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조이스는 예이츠(Yeats)를 비롯한 아일랜드문인들이 주도하는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에 가담하지 않고, 스스로 조국을 떠나 유럽을 향한 망명을 단행한 작가이다. 조이스는 아일랜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일랜드 문예부흥 운동을 비롯한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이 배타적 민족중심주의, 문화적 본질주의의 모습을 띠면서, 다른 문화를 주변부화 시키고 식민지배의 이항 대립구도를 반복하고 결과적으로 식민지구도를 재확립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이스는 식민지배아래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 결과 그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그의 조국을 떠나 유럽에서 작품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조국을 떠나 작품 활동을 했지만 조국의 어려운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은 아니다. 그의 작품의 배경은 항상 아일랜드였고, 주제는 영국제국주의 식민지배하

에서 고통받는 자국민의 모습이였다. 그러나 조이스는 아일랜드 옛날의 민족문화와 신화의 부활을 부르짖는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을 비롯한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의 배타적인 모습은 영국 제국주의 식민 담론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우려와 함께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는 영국제국주의의 횡포, 아일랜드 종교인 카톨릭의 부패와 더불어 아일랜드의 현실을 혼란케 하는 부정적인 또 하나의 요소로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부패를 들어, 『율리시즈』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이스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전개하는 배타적 민족중심주의를 반대하는 모습을 작품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그래서 민족주의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사이런즈”(Sirens)장과 “사이클롭스”(Cyclops)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블룸을 통해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배타적 민족중심주의를 조이스가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이스가 생각하는 포스트식민주의 국가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사이클롭스”장에서 “시민”(The Citizen)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블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조이스는 “텔레마커스”, “네스타”, “씨사”장에서 영국제국주의의 횡포와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텔레마커스”장에서는 영국제국주의의 상징인 영국인 해인즈(Haines)가 등장한다. 그는 영국인으로서는 식민지국가인 아일랜드의 오래된 민담을 수집하고 있다. 해인즈의 이러한 아일랜드 민담 수집에서 “중심부는 중심부의 경험만을 진정한 경험으로 간주하고 주변부의 경험은 비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여, 주변부 문화에 무질서, 야만성, 원시성 등을 부과함으로써 우열에 기초한 이항 대립적인 계층 구조를 구축”하는 실례를 찾아 볼 수 있다(Ashcroft Griffith, Tiffin 90). 그는 스티븐, 멀리건(Mulligan)과 함께 마텔로(Martello)탑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해인즈는 스티븐의 허락도 없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영국제국주의 침략과 착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마텔로 탑 속에서 그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모습은 영국

에 의한 아일랜드 지배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영국인인 헤인즈는 정보자로, 헤인즈에게 아부하는 멀리건은 배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둘에 의해 스티븐은 고통받고 있다. “만일 녀석이 계속 이곳에 머무르면 내가 여길 떠나겠어”(U 1. 62-3)라는 스티븐의 말에서 영국제국주의 하에 시달리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 스티븐이 “저 녀석이 열쇠를 갖고 싶은 거다. 그것은 내 것이다. 내가 탐세를 물었지. 열쇠도 쥐버려. 모두. 곧 그걸 달라고 하겠지. 그의 눈 속에 적혀 있었어”(U 1. 630-2)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그는 멀리건에 의해서도 또한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티븐은 이 장의 끝에서 멀리건에 대해 단적으로 “찬탈자”(U 1. 744)라고 정의 내린다. 이것은 영국의 아일랜드에 대한 착취의 모습이 그것의 악영향의 결과로 아일랜드 자체 내에서도 국민들 사이에 착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가 된다. 제국주의 중심부가 식민지 국가를 침묵화, 주변화시키는 과정이 식민지 국가 안에서 같은 구도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멀리건과 스티븐의 관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아일랜드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타락적으로 되어 가고 비참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장에는 우유배달 할머니가 등장한다. 이 할머니는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헤인즈와 멀리건에게 우유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굴종을 강요당하는 식민지 아일랜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장에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괴로워하는 스티븐의 모습이 나온다. 이것은 그 당시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는 카톨릭 종교에 대한 거부이다. 이것은 영국제국주의와 결탁한 채 권력에 아부하며 타락해 가는 종교 속에서 고통 당하는 스티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것 또한 영국 제국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식민지인의 고통스런 모습이다. 이와 같이 “탈레마커스”장에서 조이스는 아일랜드 국민들이 영국제국주의에 의해 착취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침묵화 되고 주변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제국주의의 횡포와 그로 인해 파멸해가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삶을 모든 포스트 식민주의 작가가 그러하듯이 조이스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스터”장에는 “옆 선반 위에는 접사에 담긴 스튜어트 동전”(U 2. 201)과 벽에 걸려둔 “웨일즈의 황태자, 앨버트 에드워드”(U 2. 266-7)라는 구절이 나오는 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장에는 친영파 교장 디지(Deasy)가 등장한다. 그는 얼스터(Ulster)출신이다. 그런데 이곳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신교도 지역인데,

이들은 이 지역이 영국 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일랜드 독립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곳 출신인 디지 교장도 이곳이 영국 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국 생활 방식을 따라하고, 영국제국주의에 찬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조이스는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제국주의자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인물을 통해, 항상 제국주의를 식민지 국가에서 정당화하려는 식민 담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식민 담론 속에서 심리적, 문화적 혼란과 정체성 상실이라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이라는 것을 조이스는 보여주고 있다.

영국제국주의와 아일랜드의 직접적인 대결구도가 환각 장면을 통해 펼쳐지면서, 그 속에서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박해받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장은 “써시”장이다. “써시”의 배경은 밤의 도시(Nighttown)인데 이 장에서는 환각기법이 주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밤의 도시 한 술집에서 스티븐은 술에 취해 있을 때 어머니의 유령을 보고 상들리에를 깨고 술집을 뛰쳐나온다. 이때 스티븐은 영국 병사 카아(Carr)와 시비가 붙게 된다. 그런데 스티븐이 영국 병사와 대결하는 장면은 확대하여 영국제국주의와 아일랜드 사이의 대결로 볼 수 있다. 조이스는 환각 장면을 통해 영국제국주의와 아일랜드가 대결하는 장면을 극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대결의 환각 장면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은 영국 시인 테니슨, 에드워드 7세, 늙은 아빨 빠진 할멈, 트위디 소령, “시민” 등이다. 이들은 여기에서 영국 편과 아일랜드 편으로 나뉘져 대결한다. 스티븐과 영국 병사들의 시비에서 영국 병사들이 제국주의적 폭력을 가할 때, 영국시인 테니슨이 등장해 영국 병사를 두둔한다. 또한 에드워드 7세도 등장한다. 이 둘은 스티븐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결과 그가 거역하고자 하는 영국제국주의의 정치적, 문화적 유산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또한 이 싸움에는 늙은 아빨 빠진 할멈이 등장하는데, 이는 테니슨과 에드워드 7세와는 반대로 아일랜드를 상징한다. 이 늙은 아빨 빠진 할멈은 처음 등장에서 억압당하고 상처받는 아일랜드와 영국 군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유약한 스티븐의 자화상을 상징하고 있다. 환각 장면 속에서 영국제국주의와 아일랜드 사이의 대결이 계속 된다. 영국 병사가 스티븐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극화되어 영국을 대표하는 트위디 소령과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시민”이 대립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이 장은 스티븐과 영국 병사의 사소한 시비를 환각 장면을 통해 영국제국주의와 그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아일랜드 대결로 확대하여 보여 줌으로써, 영국제국주의 횡포와 억압당하는 아일

랜드 사람들의 고통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살펴 본 “틸 레마커스”장, “네스터”장, “씨시”장을 통해, 조이스가 포스트 식민주의적 글쓰기의 특징이라 볼 수 있는 영국제국주의 아래에서 심리적, 문화적 혼란을 겪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를 스티븐을 중심으로 찾아보았다.

III

포스트 식민주의적 글쓰기의 두 번째 전략은 “텍스트 안에서 제국주의 중심을 폐기하는 것”이다(Ashcroft, Griffith, Tiffin 83). 제국주의 중심을 폐기하는 전략으로 손쉽게, 일차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민족주의 운동이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문화적 저항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노력들로서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현상이,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는 그 공통의 목표가 민족자결주의와 독립인 결사체와 정당들이 창출하는 현상이 19세기 알제리, 아일랜드,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 무장 저항과 동시에 진행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xii). 여기에서 우리는 식민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전략으로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것은 무장 저항과 함께 진행된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이스도 『울리시즈』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조이스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의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비이성적이고, 감상적인 모습을 그의 작품에서 비판하고 있다. 네언(Tom Nairn)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민족주의의 유전적인 암호는 ‘건강과 ‘병적 상태라고 부르는 모순적 신호들에 의해 동시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다(Gandhi 106 재인용). 그런데 비합리성의 형태들(편견, 감정적임, 집단 이기주의, 공격성 등)이 유전적 암호의 많은 부분들을 물들이고 있다는 것이다(Nairn 347-348). 조이스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에서 민족주의의 이런 모습을 간파해 내고 이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면을 통해 아일랜드의 민족주의가 배타적 민족중심주의, 문화적 본질주의로 빠지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애쉬크로프트 등도 포스트식민주의 사회의 혼성적인 리얼리티 안에서 식민지 이전의 문화적 순수성을 회복하거나 그 상태로 돌아가려는 시도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109). 그래서 조이스는 “부분적 잔리나 진

부한 생각을 정설로 들어 올려’ 특권화하는 편협한, 배타적 민족중심주의와 문화적 본질주의는 식민지배 피지배라는 이항 대립적인 식민 담론을 되풀이한다고 본다(Ashcroft, Griffith, Tiffin 17). 그 결과 이것은 영국문화를 주변부화 시키면서 그들의 문화를 억압하는 새로운 식민 구도를 만들으로써, 식민지배 체제를 재확립하는 위험성을 가진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 민족중심주의 또는 문화적 본질주의는 식민주의 담론의 이항 대립들과 위계들을 단순히 반복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기 패배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예이츠의 산비주의, 그의 향수에 찬 켈트 신화 부흥, 구 아일랜드에 대한 그의 완강한 환타지는 이미 아일랜드의 후진성과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편견에 찬 식민주의 의식을 그 근저에 깔고 있다(Gandhi 109). 달리 말하면 토착 문화주의를 승인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귀결들, 제국주의 그 자체에 의해 부과된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분열들을 승인하는 것이다”(Said 276). 그리고 네그리튀드²⁾, 아일랜드성, 이슬람 또는 카톨릭과 같은 본질의 형이상학을 위해 역사적 세계를 떠나는 것은 인류를 서로 대립되게 할 만한 권력을 가진 본질의 형태들을 위해 역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라고 사이드는 말하고 있다(276). 조이스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배타적 민족 중심주의 또는 문화적 본질주의를 아일랜드 민족주의가 경계해야 할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조이스가 그의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에 대한 견해를 나타낸 장들로서 “싸이런즈”장과 “사이클롭스”장을 들 수 있다. 이 장들은 『율리시즈』의 주요인물 중에 하나인 블룸이 등장하는 장들이다. 그는 오먼드(Ormond) 주점과 바니 키어넌 주점(Barney Kiernan’s)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모습을 접한다. 조이스는 두 장들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블룸을 통해 그의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견해를 파력하고 있다. 블룸은 “싸이런즈”장에서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모습을 잠시 목격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이클롭스”장에서는 대단한 국수주의자 “시먼”과 격렬한 대결을 벌인다. 이 두 장들의 사건들에서 블룸이 취하는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싸이런즈”장에서 블룸이 오먼드 주점에 있을 때, 사이먼(Simon), 벤(Ben), 카울리(Cowley) 신부 등이 모여 이 주점에서 노래를 하게 된다. 그들은 서로 노래를 부르다가 벤에게 <까까

2) 네그리튀드(negritude): 이차대전 이후 레오폴드 생고르(Leopold Senghor)나 에이메 세자르(Aime Cesaire)등에 의해 제기된 이론으로 아프리카 문화와 개성의 특이성을 주장한다.

머리 소년(The Croppy Boy)의 노래를 청하게 된다. <까까머리 소년> 노래의 내용은 까까머리 소년이 아일랜드를 위해 싸우려 출정하기에 앞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기 위해 신부를 찾아간다. 그는 어머니 죽음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은 죄를 포함해서 여러 죄를 고백하기 위해 찾아 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신부는 가짜신부로서 적의 용병이었다. 그 결과 까까머리 소년은 처형되고 만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내용의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감상에 빠지게 된다.

그를 위해 기도하오, 하고 베이스음의 돌라드가 기도했다. 평화롭게 듣고 있는 자들이여.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오, 눈물을 떨어뜨려요, 선량한 남자들이여, 선량한 사람들이여. 그는 까까머리 당원이었다오. (U 11. 1139-1141)

그들이 취하는 태도는 그 당시 더블린에 팽배해 있던 감상적 민족주의자 또는 애국주의자의 모습이다. <까까머리 소년>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은 민족주의자들이 경계해야 할 감상적인 면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블룸은 “끝나기 전에 밖으로 나가자”(U 11. 1122)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감상적 애국주의에 합류하려 하지 않는다. 블룸은 더블린 사람들이 빠져 있는 감상적 애국주의에서 빠져 나오려 하는 것이다. 블룸은 “나는 파하길 잘했어”(U 11. 1145)라고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밖으로 나온다. 이러한 블룸의 모습을 통해 조이스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안일하게 습관적으로 젖어 있는 감상적이고, 피상적인 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오먼드 주점에서 감상적 민족주의자의 무리에서 빠져 나온 블룸은 “사이클롭스”장에서 맹목성을 띤 대단한 국수주의자 “시만”을 만나게 된다. 이 장에서 블룸은 “시만”과 한판 대결을 벌인다. “시만”은 게일릭 운동 연맹(Gaelic Athletic Association)의 창시자 마이클 쿠색(Michael Cusack)의 캐릭터이다. “시만”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에 대해 비이성적인, 편협한 모습으로 가득 찬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국수주의자이다. “시만”은 민족주의에 대해 광신적이고, 맹목적인 면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민족주의가 빠지기 쉬운 배타적 민족중심주의라는 부정적인 면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과 블룸은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블룸은 “시만”과 대조적인 면을 가진 인물이다. “시만”은 『오디세이아』(Odyssey)의 애꾸눈 거인 사이클롭스를 연상시키는 인물로서, 애꾸눈 거인처럼 외형상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외눈의 사람으로서 아일랜드 민족주의에 대해 편향된 견해를 가진

인물이다. 이와는 달리 블룸은 문제의 양면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양안을 가진 인물이다.

『율리시즈』에서 “사이클롭스”장은 풍자의 장인데, 여기서 풍자의 대상은 영국 제국주의 폭력과 이에 못지 않은 “시만”에 의해 대표되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의 폭력이다. 포스트 식민주의 작가들이 그러하듯이 조이스는 이 장에서 사실상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폭력을 만들어낸 원인이라 볼 수 있는 영국제국주의 횡포를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조이스는 『율리시즈』에서 예를 들면 헤인즈에 대한 그의 묘사에서, 벨기에령 콩고에서 난폭한 행위에 대한 로저 케이스먼트의 폭로를 언급하는 데서 그리고 ‘사이클롭스’에서 빅토리아 여왕과 그녀의 제국을 다루는 두 개의 패로디 구절에서 유럽(특히 영국)의 제국주의의 악덕과 허식을 비난했다(Fairhall 179).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율리시즈』에서 “사이클롭스”장을 비롯한 다른 장들에서 영국제국주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조이스는 제국주의의 폭력을 이용한 침략과 착취 속에서 지배당하고 고통받는 자기 조국에 대한 관심을 작품을 통해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이스는 이항 대립적인 식민지 구도를 재확립하는 배타적 민족중심주의 또는 문화적 본질주의도 또한 경계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제국주의 중심을 진정으로 폐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진정한 포스트 식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조이스의 이러한 견해는 민족중심주의는 담론의 시작이지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Saint Clair 97). 조이스의 이러한 면에 대해 페어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16년 부활절 봉기의 유혈이 아니라 계속되는 처형들의 유혈이 보다 초기의 전성기동안 조이스를 매혹시켰던 그리고 1918년 12월에 선거의 압도적인 승리와 1919년에서 1921년 사이의 앵글로 아이리쉬 전쟁의 길을 열었던 운동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그가 감명 받았음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실패의 부활에 대해서 기뻐했을지라도³⁾, 아일랜드 본질주의 그것의 원칙

- 3) “페니언당원들에 대한 조이스의 나중의 만개한 관심은 세계 제1차대전과 1916년 봉기에 의해서 유발되어졌을 것이고 아마도 아일랜드에서조차 변화를 일으킨 폭력적인 민족주의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얼마 안 되는 전에 억압된 사람들의 독립을 낳았을지라도, 전후 아일랜드에서 그리고 유럽대륙에서 다시 그려진 지도는 아마도 그에게 무의미한 것 같았다.... 그의 아일랜드자치국가의 창설에 대한 짧은 들뜬 기분은 회의주의와 절망으로 변했다...사실상 이런 종류의 혁명에 대한 조이스의 선호의 기저를 이루는 것은 그의 깊게 뿌리 박힌 평화주의였다”(Fairhall

과 죽은 영웅들을 불러내는 것과 낭만화된 나라의 역사는 의심 없이 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보다 초기의 불신을 확신했다. 민족주의의 어두운 힘은 그가 『울리시즈』를 쓰고 있을 때 유럽을 진동시키고 있었다. (177-178)

그래서 조이스는 이 장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면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비이성적이고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광신적이고 맹목적이고 또한 폭력적이기도 한 국수주의자 “시민”을 내세워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영국제국주의의 폭력 못지 않은 배타성에 기초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폭력성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영국제국주의가 아일랜드에 행하는 식민지 구도를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그대로 반복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이스의 이러한 견해는 그의 주된 표적은 결국 아일랜드 민족주의로 돌아가는데, 그는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영국이 표방하는 태도의 거울 이미지로 제시한다라고 말한 페어홀의 견해와도 일치한다(179).

블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국수주의자 “시민”의 표적이 된다. 블룸이 유대인이란 점은 그가 이 아일랜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주된 요인이다. 『울리시즈』 곳곳에 무시당하는 블룸의 모습이 등장한다. 바니 키어넌 주점에 모인 사람들은 블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블룸은 ‘시민’과 그의 술 취한 친구들을 화나게 한다. 왜냐하면 그는 걸어 다니는 역설이고, 아일랜드의 상상되어진 단일체의 위협이기 때문이다”(Fairhall 173). 그들은 그들의 단일체에 정치적, 종교적 신분이 불확실하고, 그의 아버지가 헝가리게 유대인인 블룸을 절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시민”을 대표로 한 민족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심각한 배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시민”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피의 유대에 의한 공동체이며, 그는 그자신의 공동체의 과거 영광에 대해 향수를 가지고 있고,

47-48). 또한 조이스는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평화주의, 그를 매혹시킨 민족주의와 더불어 사회주의는 그의 세 번째 공적인 정치적인 태도이다. 그의 사회주의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폭넓은 원칙으로 공유했던 민족자치, 평화, 경제적 평등과 같은 목표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는데, 이러한 “조이스의 사회주의는 실패인으로 부터 그가 거리를 두는데 도왔다”(Fairhall 49).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조이스의 정치적인 믿음은 분류하기 어렵다. 그는 평생동안 평화주의자였다. 그러나 평화주의의 조직화된 표현과는 초연해 있었다. 그는 영국 제국주의를 싫어했다. 그러나 실패인에 짧게 매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조직화된 표현들에는 참여하지 않았다”(Fairhall 54).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는 죽은 사람, 살아 있는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되어진 “바다 저 너머 우리의 보다 위대한 아일랜드”(U 12. 270)를 포함하여 거대한 상상되어진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시민”의 이러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편협함, 감상을 넣고, 그 결과 타자에게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배타적으로 되는 것이다. “시민”의 이런 모습은 배타적 민족중심주의와 문화적 본질주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민”에게 조이스는 불륜을 통해 공격을 가한다. “시민”의 배타적, 국수주의적 태도와 비이성적인 반유대주의에서 나오는 폭력성은 영국제국주의가 행하는 폭력성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폭력성이 단일체의 위협이라고 생각되는 존재인 불륜에게 가해진다. 이러한 폭력성 속에서 유대인인 불륜은 심하게 공격당한다. 그리고 술집에 모인 사람들이 불륜에게 민족의 개념을 묻는데, 거기에 불륜이 “민족이란 같은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U 12. 1422)라고 답하자 그들은 불륜을 심하게 조롱한다. 그러나 불륜은 여기에 대응하여 유대인은 박해받는 민족이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그에게 가해지는 폭력성에 대해 사랑의 가치를 역설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화주의적, 인도주의적 불륜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 점이 불륜이 “시민”에게 승리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그건 소용없는 것이야, 하고 그는 말한다. 힘이든, 증오든, 역사든, 그때워 모든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산다는 건 그게 아니야, 모욕 그리고 증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것이 진정으로 산다는 것의 정반대라는 것을 알고 있지.

-그럼 뭐야? 하고 엘프가 말한다.

-사랑이야, 하고 불륜은 말한다. 내가 뜻하는 것은 증오의 반대 얘기지.

(U 12. 273)

여기에서 ‘합’, ‘역사’는 영국 제국주의가 아일랜드에 가하는 횡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모욕’, ‘증오’는 영국제국주의의 횡포와 착취에 반응하는 식민지인의 감정이란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이스는 ‘모욕’, ‘증오’는 사람이 진정으로 산다는 것의 정반대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증오’ 대신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조이스가 아일랜드 민족주의가 현재 빠져있는 ‘증오’와 ‘모욕’의 감정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배타적 민족중심주의로 인해 진정한 아일랜드의 독립을 저해할지도 모른

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조이스가 주장하는 것은 힘에 대해서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닌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간에 배타적 민족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관계를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도주의와 평화주의적 면모를 가지고 있는 블룸이 배타적 국수주의자 “시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블룸의 이러한 면을 통해 배타적 민족중심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의 가치를 역설하면서 블룸은 주점을 빠져 나온다. 이에 블룸이 말한 사랑을 조롱하는 “시만”의 삽입이 뒤따른다. 이 조롱을 통해서 우리는 블룸이 말하고 있는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폭력적이고, 편협한 “시만”을 보게 된다.

블룸이 나간 다음 술집에 모인 사람들은 블룸의 유대인 신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비난한다. 잠시 나갔던 블룸이 돌아오고 “시만”의 블룸에 대한 조롱과 멸시와 함께 다시 그의 공격은 시작된다. 블룸은 “시만”의 공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주점을 빠져 나와 이룬마치에 오른다. 이런 블룸에게 시만은 “성스러운 이름을 더럽힌 저 경질 유대인 놈의 대가리를 부숴 버릴테다. 밧어먹을, 저놈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줄 테다 기필코”(U 12. 280)라고 말하면서, 비스켓 상자를 블룸에게 던지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여기서 “시만”이 블룸을 십자가형에 처하겠다는 말에서 구세주로 부활할 수 있는 블룸을 암시 받는다. “시만”이 던진 비스켓 상자가 빗나가고, 이룬마차를 타고 쏜살같이 도망치는 블룸의 모습을 이 장의 서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서술자가 서술한다. 이 두 서술자가 하는 서술을 통해 우리는 블룸의 모습에서 구세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일인칭 서술자는 “마부는 무서운 속도로 마차를 몰아 마치 하느님이 모세를 도왔던 것처럼 그의 생명을 완전히 구해 냈다”(U 12. 282)라고 서술한다. 여기에서 블룸은 모세로 비유된다. 그리고 삼인칭 서술자의 서술에서 블룸은 구세주인 모세, 엘리야, 그리스도와도 일치된다. 이와 같이 “시만”의 폭력성과 더블린 술꾼들의 온갖 비난과 수모에 대항해 사랑의 가치를 역설하는 인도주의적, 평화주의적 성향의 인물인 블룸이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IV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면인 배타적 민족중심주의 또는 문화적 본질주

의를 대표하는 인물인 “시민”과의 대결에서 불륨이 승리하는 모습은 제국주의 중심부를 폐기하는데 배타적 민족중심주의 또는 문화적 본질주의는 진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조이스가 제시하는 것이다. 바바(Bhabha)는 과거를 찬양하는 로맨스에서 혹은 현재의 역사를 동질화하는 행위에 의해서 ‘뿌리가 내려지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식민문화의 석화 과정 속에서 정체성들이 고착화되고 물신화 될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9). 민족주의 운동의 부정적인 면인 문화적 본질주의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 식민주의 비평가들은 반식민 민족주의가 제공하는 시각이 종종 식민 경험을 한편의 억압과 다른 한편의 보복 사이의 대립이라는 진부한 딜레마에 국한시킨다고 주장한다(Gandhi 124). 심리적, 문화적 회복을 위한 민족주의 작업이 식민을 통한 문명화라는 사명 속에서 이뤄지는 제국주의의 야만주의, 타락, 야수성에 짓눌려 온 민중을 해방시키는데 핵심적이라 볼 수 있지만, 문화적 정체성을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포스트 식민주의라 볼 수 없다. 토착 문화주의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세계에 대한 보다 더 관용적이고 다원적인 전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사이드는 주장한다(277). 그러면 여기서 불륨이 “시민”의 편협한 국수주의와 반유대주의에서 나오는 엄청난 폭력성에 어떠한 수단으로 대항하는 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 모든 악의 화신이며, 악에는 악으로 힘에는 힘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물리적 힘의 민족주의 하세를 부리는 대중의 얼굴을 대표하는” “시민”의 공격에 대해, 불륨은 그가 증오의 반대라고 말하는 사랑을 가지고 대응한다(Fairhall 174). 조이스는 악덕과 물리적 힘으로 식민지를 착취하는 제국주의에 또다시 배타성과 거기서 나오는 힘의 논리를 표방하여 대결한다는 것은 제국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고 또다시 대결구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모습은 포스트 식민주의 국가의 진정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랑을 “시민”의 공격의 대응 수단으로 선택한 불륨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불륨은 주점에 모인 사람들이 민족의 개념을 묻는 말에 민족은 “같은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같은 백성이자”(U 12. 1422) 그리고 “혹은 다른 지역 안에 살고 있어도”(U 12. 1428)라고 답한다. 즉 불륨의 민족 개념은 편협한 것이 아니다. 같은 지역에 다른 인종들도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고, 비록 같은 민족이 다른 국가에 있을지라도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종과 지역을 초월한 민족 개념이다. 그리고 사랑을 역설하는 불륨을 보고 “시민”은 “이교도들에 대한 새로운 사도군...

범인류애야'(U 12. 1489)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도는 사도 바울(Paul)을 가리키며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래 종족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복음을 전파한 인물이다. 비록 “시만”이 조롱 조로 이렇게 말했지만 블룸은 종족이나 민족을 차별함이 없이 범인류애를 실현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조이스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부정적인 모습인 배타적 민족중심주의 또는 문화적 본질주의를 대표하는 “시만”을 블룸을 통해 전복시킴으로써, 그 자신의 포스트식민주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블룸은 포괄적인 민족개념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로서 편협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시만”과 대조를 이룬다. 블룸의 민족 개념에서는 지역, 인종을 초월함으로써 민족간의 엄격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블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식민지배국가, 식민지국가 양쪽 어느 단일한 공동체에도 속할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민족에 대한 그의 포괄적인 개념은 타당성이 있다. 조이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양쪽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는 블룸을 통해 단일 공동체에 기초한 편협한 배타적 민족중심주의를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블룸은 배타적 민족중심주의에서 나오는 “시만”의 폭력에 증오의 반대인 사랑으로 대응한다. 이것은 영국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힘에는 힘으로라는 폭력까지 수반하는 배타적 민족중심주의에 대해 평화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블룸의 사랑과 화해라는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배타적 민족주의가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항 대립적인 대결을 통한 식민지 구도의 반복을 조이스는 지양하는 것이다. 힘의 논리에 대한 블룸의 이런 사랑과 화해의 논리는 식민지국가에서 제국주의가 자행한 힘의 지배에, 힘으로 대항함으로써 힘에 의한 지배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신에 이것은 민족과 민족간에 이항 대립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문화적 정체성만을 고집할 수 없는 전지구화 되는 현 상황에서 민족간의 공존의 관계를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길로이(Gilroy)가 강조하듯이 포스트 식민성의 주제들은 결국 종족성과 민족주의 경계를 초월하여 더욱 관용적인 ‘이중적 의식’을 선포한다⁽¹⁾. 식민지배자와 식민지인의 상호변형에 대한 강조를 통해 식민과거를 비폭력주의적으로 독해한다는 포스트 식민주의적 제안, 그리고 제도화된 수난에 대항하기 위해 문명들 사이의 유토피아적 동맹을 제시하는 포스트식민주의의 청사진은 실로 건전한 것이다(Gandhi 140). 블룸이 『울리시즈』에서 보여주는 힘의 논리에 사랑과 화해의 논리를 적용하는 모습이야말로 조이스가 주장하는 진정한 포스트 식민주의 국가의 미래인 것이다.

(고려대)

인용문헌

-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The Empire Writes Back*. London: Routledge, 1989.
-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4.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UP, 1993.
- Gandhi, Leela. *Postcolonial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Columbia UP, 1998.
- Gilroy, Paul. *The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Consciousness*. London: Verso, 1993.
- Joyce, James.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 Hans Walter Gabler. New York: Vintage, 1986.
- Nairn, Tom. *The Break-Up of Britain: Crisis and Neo-Nationalism*. London: New Left Books, 1977.
- Nelson, Emmanuel. "Fourth World Fiction: A Comparative Commentary on James Welch's *Winter in the Blood* and Mudrooroo Narogin's *Wild Cat Falling*." *Critical Perspective on Native American Fiction*. Ed. Richard F. Fleck. Washington D.C.: Three Continents P, 1993. 57-63.
- Said, Edwar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Knopf, 1993.
- Saint Clair, Janet. "Uneasy Ethnocentrism: Recent works of Allen, Silko, and Hogan." *Studies in American Indian Literature* 6. 1 (1994): 83-98.

Abstract

Joyce's Postcolonial Perspective in *Ulysses*

Heesun Kim

Some controversial characteristics of postcolonial writing can be applied to James Joyce's novel *Ulysses*. In the early twenties, the temporal background of the novel, Ireland was a colony of English imperialism, and Catholicism, as the mental prop of the Irish people, was gradually degraded. Although the Irish nationalism such as Sinn Fein tried to save the Irish people from this dismal situations, it became as violent as English Imperialism and also got very exclusive, narrow-minded, irrational and sentimental. As a result, in the matter of the Irish nationalism that first aroused his keen interest, Joyce later has taken a critical stance. Stephen Dedalus and Leopold Bloom in *Ulysses* go through cultural and psychological disruptions and are losing their identity as many Irish people do in this situation. This thesis examines how the Irish people are silenced and marginalized in the colonial society by focusing on some examples in "Telemachus", "Nestor" and "Circe".

Thinking that Irish nationalism tends to become exclusive nationalism and cultural essentialism, Joyce is anxious about and warns against these corruptive aspects of Irish nationalism. Joyce in *Ulysses* attempts to indicate these negative aspects of Irish nationalism in the scene of Bloom's defeating "The Citizen", the very chauvinistic character, in "Cyclops". The narrow-minded, exclusive and irrational character, "The Citizen", symbolizes the undesirable aspects of Irish nationalism but his logic of power is symbolically defeated by Bloom's maintenance of love. This suggests that resisting the exploitation of English Imperialism by means of exclusive nationalism cannot but repeat colonial discourses based on binary oppositions. By showing the chauvinistic "The

Citizen's defeat by cosmopolitan Bloom, Joyce demonstrates that the exclusive nationalism and cultural essentialism cannot be effective means of resisting English imperialism. In conclusion, the desirable way of postcolonialism, as Joyce shows, is not so much resisting powerful dominance of English imperialism by means of power as overcoming colonial/dichotomous discourses groping for diverse ways of coexistence between nations beyond racial and political differences.